

## 탄 원 서

수신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단독 이림 부장판사님

탄원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346호, 대표 이종희)

전화 02)774-4551

사건번호 : 2008고단 5024, 2008고단 5623(병합)

피고인 : 이태봉 외 23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 단체는 1998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간지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 재판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탄원하오니 재판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인터넷 활동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6년 발간한 『웹 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만12~49세 인터넷 이용자 2,457명 가운데 카페/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경우가 77.8%(과거의 경험까지 산출할 경우 93.3%)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에 게시된 글, 뉴스 등의 콘텐츠를 퍼나르기(뽑)한 경험도 62.0%에 달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91.6%가 카페/커뮤니티 활동, 퍼나르기(뽑) 등의 참여와 공유 활동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자도 15.4%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선행·미담(19.7%)'이나 '부정·부패(12.8%)' 등을 알리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16.2%는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퍼나르기에 동참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인터넷 입소문 확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위 조사대상자 중 31.7%가 카페/커뮤니티를 개설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카페/커뮤니티 이용자의 36.1%가 본인이 직접 카페/커뮤니티를 개설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교류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카페/커뮤니티 이용자의 79.9%는 카페/커뮤니티 이용시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66.6%는 ‘직접 글을 쓰거나 다른 곳에서 스크랩해 온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는 회원과 채팅, 메일, 쪽지 교환을 하는 경우’가 36.7% ‘정모, 번개 등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는 경우도 26.1%로 나타났습니다.

2. 촛불시위에 대한 일부 언론의 편향적 기사의 문제점은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졌고,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고 활동한 것은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행태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08년 5월 초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판하는 다수의 카페들이 개설되어 왔습니다. 이들 언론을 지지하는 카페 역시 개설되었으며 5월 31일 개설된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은 그 흐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있는 네티즌은 이들 카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다음’ 카페 내에서의 일만은 아니었으며, ‘82cook.com’, ‘마이클럽’ 등의 커뮤니티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비판과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상업용 요리정보 사이트인 ‘82cook.com’의 ‘자유게시판’은 운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5월 회원들이 수평적이고 자발적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이 개설되기 이전인 5월 14일 “변할리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올린 “육식하면 건강을 망친다는 사람들-조선일보”라는 게시글에는 조선일보에 반대하게 된 동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변할리가 ( 124.50.54.xxx , 2008-05-14 09:30:49 , Hit : 856 )

**육식하면 건강을 망친다는 사람들-조선일보**

오늘자 조선일보 섹션 헬스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편집장이 쓴 글이라네요..

.....

지난 주말, 구두를 한 켤레 사기 위해 모처럼 백화점에 갔다 저녁 거리를 위해 음식점장에 갔습니다.

아내는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 고추, 부추, 토란 등 ‘자연’만으로 상을 차린다는

모 한복 디자이너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며 유기농 매장으로 ‘씩씩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채소와 가공품들이 그리 비싼지... 얼른 아내 소매를 끌었습니다.

음식매장을 둘러보니 특급 한우가 50% 세일을 해서 국·장조림거리를 샀고,

저녁 식사용으로 족발도 한 팩 샀습니다.

SI 확산과 미국 소 수입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가금류 매출은 아예 끊기다시피 했고, 아직 수입도 안된 미국 소 때문에  
 한우 매출까지 툭 떨어져 축산농가가 울상입니다.  
 이 틈을 타서 '건강에 해로운' 육식 대신 채식을 하고, 이왕이면 유기농산물을 먹자는 소리도 들립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족발을 먹으며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구와 생명을 걱정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자연 먹거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모든 먹거리를 직접 장만하는 '유별난 사람'을 빼면  
 매일 '자연'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재벌뿐입니다.  
 60억 넘는 인류 중 극소수를 뺀 대다수는 농약 친 농산물과  
 항생제 섞은 사료로 키운 육류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능성도 없는 자연 회귀 주장이나 대량 사육된 육류에 대한 혐오감 조성은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서점에 가 보면 육식이 지구와 건강을 망치고,  
 가공식품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섬뜩한 제목의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TV에선 연신 죽은 닭이나 오리를 살(殺) 처분하고  
 비틀거리는 육중한 소를 지게차로 밀어내는 끔찍한 장면이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어떻게 쇠고기와 닭고기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까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않고 말초적 감성에 호소해 음식에 대한 '패닉'을 조장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기농산물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채식주의는 의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입니다.  
 장기간의 채식은 악성빈혈, 성장지연, 영양결핍을 유발하고,  
 채식만 하는 수유부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두뇌성장발달지연, 척추퇴화, 신경장애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영양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인 육류섭취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편견과 선동이 난무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계란과 닭고기는 익혀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소는 아직 수입도 되지 않았고, 설혹 수입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몇 십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 관해서만은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 임호준 Health 편집장 hjlim@chosun.com  
 2008.05.13 16:19 입력 / 2008.05.13 16:48 수정

.....

미국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어제부터 조선일보의 논조가 좀 수그러 들었다 싶었습니다.  
 그치만..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섹션 헬스란을 보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언제는 채식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국인의 육류섭취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답니다.

저 시발병된 뒤에도 여전히 닭갈비도 먹고 삼계탕도 해먹고 계란도 먹습니다.  
 그거하고 수입쇠고기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으니까요..  
 조심해서 될게 있고 조심해도 피해갈 수 없는게 있는데..  
 둘다를 뭉뚱그려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죠..

조선일보 사회면은 분명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한풀 꺾인듯하나..  
 대신 이젠 인터넷이 사회를 망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무방비로 클릭한번만으로 인터넷의 음란물에 물든다고도 나오구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게 명예훼손에 해당될듯해서 수사한다고 나오네요..  
(이런 그게 명예훼손이면 이전 대통령들 비방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건지..)

그러면서 오늘자 소년조선에는 포켓몬스터 온라인사이트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 단체로 소년조선보는데 일주일에 두세번씩 게임사이트 광고까지 친절하게 실어주시니..  
그 게임사이트 들어가서 게임하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전혀 안맞는 조선일뿐입니다.

저 내일이면 이제 조선일보랑 안~~녕합니다..^^  
내일 다 결제해준다고 그만넣으라고 했거든요..넘 속시원합니다.

위 게시물에는 게시자에 공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게시물과 그에 달린 댓글들은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인 인식이 이미 5월 중순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하하 ( 116.39.212.xxx , 2008-05-14 09:38:57 )  
아...저도 그 기사 읽었습니다.  
미국소는 아직 수입이 안되었다고 안심하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푸하하2 ( 128.134.207.xxx , 2008-05-14 09:53:00 )  
그런데 왜 수입소고기와 닭고기가 아닌, 특급 한우와 돼지 족을 사드셨을까요....  
쩍...

.... ( 121.128.224.xxx , 2008-05-14 09:55:27 )  
지들 구내식당은 호주산 청정육쓴다고 난리피는 것들이.. -\_-;;

jk ( 58.79.26.xxx , 2008-05-14 10:10:24 )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한우]와 [족발]이랍니까?  
용감하게 수입산 쇠고기와 닭/오리를 집어들어야죠.. 찼..

하하 ( 211.216.201.xxx , 2008-05-14 10:11:05 )  
요즘 자꾸 입에서 욕이 나와요 =.=  
미치겠습니다

웃김 ( 222.98.41.xxx , 2008-05-14 10:16:02 )  
저 채식하는데 우리 애들 평균보다 1년 이상 키와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어디 나가면 애들 푹푹하고, 크게 이쁘게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요.(물론 한달에 한번쯤...그보다 적게 고기 먹입니다.)  
채식하는 엄마 젖 먹고 왜 우리애들은 건강할까요? 아니 기사쓴 임준호란 사람은 본인이 젖먹여 봤데요? 해보지도 못할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아주 제대로 웃깁니다.  
소 한마리 먹이는 곡물양이면 다섯명의 아프리카 사람을 먹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30개월을 키워서 잡은 소한마리의 양이 대략 3~400키로가 나온다지요.  
계산을 해봅시다.  
30개월간 \* 매일 다섯명분의 곡물 = 3~400키로의 쇠고기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30개월밖에 안된 어린 소(어디서 듣기엔 사람으로 치자면 10살정도도 안되는 어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

하고 우리에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생명은요?

전 지금 넘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기를 안먹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입이 즐겁자고 넘치게 먹지는 말아야죠.

지금도 육류섭취가 부족하다고요?

당신이 먹는 고기는 그냥 맛있는게 음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남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이어가면 고맙게 여겨야지 아직도 입에서 부족하니 네 생명을 더 내놓아라니...아주 웃깁니다.

다은맘 연주 ( 220.116.184.xxx , 2008-05-14 10:19:31 )

정말 사람 하나바꿨을뿐인데..모든게 다 싹 바뀌네요..답답합니다..

그래.. ( 59.14.192.xxx , 2008-05-14 10:34:22 )

쫓선일보 니들이 어디로 가겠니...

웬일로 정부 까는 기사를 썼다했다...

한우와 족발이라...웃기지도 않네요...

기가차서 ( 125.187.40.xxx , 2008-05-14 11:00:33 )

할 말이 없네요...

.... ( 211.178.5.xxx , 2008-05-14 11:03:19 )

조중동.....

한 마디로 ( 125.187.40.xxx , 2008-05-14 11:03:44 )

무식하군요..-\_-

어떻게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올 수 있죠? 대단합니다..

... ( 118.217.67.xxx , 2008-05-14 11:36:12 )

여기 82 자계에 실렸어도 찌질한 글이라고 욕먹었을 글이 버젓이 일간지에 실리네요...

채식이 그렇게 해로우면 스님들이 오래 사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무식한 논리 ( 121.131.188.xxx , 2008-05-14 20:32:56 )

이걸 논리라고

차분하게 논리로 풀어가란다.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지 말라?

한국인은 고기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 먹고 죽을 고기래도 먹어라

애. 느이 부모님은

공연히 니 학비 댔고

어린 니 자식들이 자라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궁금하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 인터넷 공동체 회원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최소 5월 30일부터 ‘숙제’라는 이름으로 광고주 목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거야 원

( 84.73.205.xxx , 2008-05-30 08:23:15 , Hit : 1462 )

## 오늘 조중동 1면 광고

조중동 모두 약속이나 한 듯 1면 광고가 신선설농탕...

잠시 눈을 의심.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캐병신 짓을...

고시한 바로 그 다음 날 조중동 1면이라니... 허걱.

게다가 신선설농탕에 대한 에피소드를 올려주시면 무료 시식권을 보내준다니

애네들 진짜 돌대가리 아닌가요?

갠 적으로 내가 신선설농탕 사장이라면 광고영업 책임자 짜르겠음.

자,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http://www.sinsunfood.co.kr/support/episode.asp>

전화는 032-327-2747

그 다음은 아시죠?

다소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게시자들의 댓글들의 반응을 볼 때 이는 회원들에게 강요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니며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운동 동참자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는 은어적 표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pepe ( 119.149.137.xxx , 2008-05-30 08:26:06 )

푸헐~~~

신선설농탕 홍보부처장이 안티mb??;;

컱 ( 67.85.224.xxx , 2008-05-30 08:36:51 )

신선설농탕, 망쪼가 든 모양입니다.;;

(아마도 광고는 미리 예정된 것이겠지요)

오늘도 ( 211.114.55.xxx , 2008-05-30 08:48:50 )

바쁘게 생겼네요..

오늘은 1차로 신선설농탕에 다녀 왔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망할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분당 아줌마 ( 220.127.25.xxx , 2008-05-30 08:49:03 )

전화했어요.

5번이 인사팀이더라.

제가 광고하는 분 아이큐가 의심된다.

우리는 아주 광우병 고기만 골라쓰겠다고 내놓고 선전을 하네요라고요.

인사담당자 한숨을 푹 쉬더라.....

참 그 많은 돈 어디다 불우이웃 돕기나 하지...

—— ( 211.231.164.xxx , 2008-05-30 08:50:20 )

오늘 경제지 빼고 각 신문사 1면은 거의다 신선설렁탕 인거 같더라구요..

?? ( 125.177.51.xxx , 2008-05-30 08:51:31 )

거기가 땅콩버터 넣는다는 설렁탕 맞죠?

어떻게 조종동 1면을 동시에....

하여튼 별나라 사람들..

신선 ( 70.67.136.xxx , 2008-05-30 08:52:20 )

설렁탕 본사에 전화했어요.

전번 : 032 327 2747입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죄송하다며 쾌활하게 전화받네요. 분위기파악 제대로 못하고서리는...

자 게시판도 ( 123.254.83.xxx , 2008-05-30 09:07:32 )

<http://www.sinsunfood.co.kr/support/episode.asp>

에라이 ( 125.133.55.xxx , 2008-05-30 09:16:32 )

설렁탕중에 신선 설렁탕을 쟈 많이 먹었는데...이런 쟈장...배신을 때리네요..

앞으론 명동이랑 신촌의 신선설렁탕..절대 안먹습니다...

아~ 열받아..

평생 ( 211.216.108.xxx , 2008-05-30 09:23:24 )

불매입니다~

내돈주고 안먹으면 땡~!!!

안받아? ( 58.225.65.xxx , 2008-05-30 09:24:44 )

너 오늘 주거써

광고낸사람 ( 222.234.229.xxx , 2008-05-30 13:50:55 )

아이디어 맨이네요.

이 광고를 시작으로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칭찬해줘야겠어요.

ㄱㄱ ( 116.125.16.xxx , 2008-05-30 14:10:23 )

이런 시점에...조종동 모두 1면 광고요??

대단하네요. ㅋ

안그래도 찜찜해서 설렁탕 못먹는데...정말 망하려고 걱정했나...흠~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82cook.com’은 조선일보로부터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공문을 받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하여 처음으로 화제가 된 인터넷 공동체가 되었습니다.<sup>1)</sup>

1) “<조선> “광고끓기운동은 사이버 테러” 협박 파문”,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6.14자; “조선, '네티즌 광고중지 운동'에 법적대응 예고”, 미디어스 2008.6.14자; “<조선>, 광고압박 누리꾼에 경고 공문”, 한겨레 2008.6.15자;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 운동 법으로"...누리꾼 '발각'", 프레시안 2008.6.16자; “조선일보, 82쿡닷컴에 "광고주 압박운동 법적대응"”, 한국일보 2008.6.16자; “조선일보, '82쿡닷컴' 불매운동에 강력대응”, 한국경제 2008.6.16자; “조선일보 “'불매운동'에 법적대응” 논란”, 서울신문 2008.6.16자; “조선일보, 광고주 압박에 주부사이트 법적 대응 방침 파문”, 매일경제 2008.6.16자; “주부들과의 전쟁” 선포한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한편, 상업용 여성 포털 사이트인 '마이클럽'의 '종알종알 연예계' 게시판은 평소 여성 회원들이 연예계에 대한 잡담을 나누는 자유게시판으로 운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게시판에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5월 28일 '아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올린 다음의 게시물과 그에 대한 댓글을 살펴 보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매우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야 조회 2112 추천 78 스크랩 0 등록일 08.05.28 14:33

오늘자 조중동 1면 광고주들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

28일자 중앙일보에 뜬 광고입니다.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02-2260-3114 (동문분들 힘내십시오)  
-일동후디스 <http://www.ildongfoodis.co.kr/> 02-2049-2114 ("청정"분유 내세운다는군요)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080-011-6000 >>전화무료 (LG텔레콤~ 상콤하게!!)  
SK고객들은 그냥 114누르세요^^

28일자 조선일보광고 입니다.(끝까지간다 님)

-에스오일 <http://www.s-oil.com/kor/> 02)2772-0777 (요즘유가...GS칼텍스가겠다고 하세요)  
-금강제화 <https://www.kumkangmall.com/> 02-3489-5959 (에스콰이어 살거라고 협박)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02-2260-3114 (예비대딩,선배들 화이팅)

28일자 동아일보 광고입니다.(생각나서 님)

-동국제약(마데카솔) <http://www.dkpharm.co.kr/> 02)2191-9800 (승리의 후시딘공격!!)

동국제약 홈페이지 잘 안열립니다 일단 전화 이용해주세요

-----

특히 항의가 세지면 급긴장할 것 같은 회사들 표시해두었습니다 메인타겟\*\*\*\*

그리고 미국산쇠고기 쌍수들고 환영하겠다고 했다는 E★MART입니다  
<http://emart.shinsegae.com/> 02)390-1234  
(여긴 솔직히 불매운동 쉽지 않으니, 항의는 더욱 많이!!)

2008.6.16.자 등 참조.



모두들 힘내세요!!!!

주변인들 조중동의 늪에서 꺼내주고 한겨레경향의 빛으로 인도하세요!!!

광고만 어느정도 차단하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겁니다!!!

#### <덧글 18건>

㉸뽀안마음 에스콰이어 살거라고 협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8.05.28 14:36 (58.230.xxx.245) 신고(0)

㉸쭈이 욕시~~배운 초자들은 다르군여~~~ 이래서 마글을 좋아할 수 밖에 없다니깐~~ 지금부터 목과 손가락 운동 좀 해야 겠네요.... 아야님 생유~~~

08.05.28 14:36 (122.32.xxx.105) 신고(0)

아야 마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말 탄력받을거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08.05.28 14:38 (61.105.xxx.2) 신고(0)

㉸정윤채 전, 중앙일보 구독 안 하는데요, 혹시 오늘자 보신 분, SK텔레콤 광고 몇 면에 무슨 내용 나왔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π\_π; 상담원이 자꾸 무슨 광고 봤냐고 물어보는데 거짓말하기도 글썽, 부탁드립니다!!!

08.05.28 14:45 (58.233.xxx.246) 신고(0)

바편건정권뿐이잖여~ 전화 한번도 안해봤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해요? 교육좀시켜주세요~

08.05.28 14:46 (221.158.xxx.14) 신고(0)

바편건정권뿐이잖여~ 중앙일보 맨뒤판에 전면광고 나왔네요 SK텔레콤광고요~

가죽끼리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웃으시라고 T가죽요금

08.05.28 14:47 (221.158.xxx.14) 신고(0)

아키 주부님들이 E★MART 안가야죠. 집가까이 있더라도 다른마트로 가시길...

08.05.28 14:50 (121.169.xxx.94) 신고(0)

㉸구피만세 에스케이텔레콤에 전화했어요 전화받는분들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조중동에 분노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광고좀 내지 말라고요 여직원께서 윗선한테 요청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 요 수고하세여 그러고 끊었음 ㅋㅋ

08.05.28 14:53 (124.59.xxx.90) 신고(0)

㉸꿈꾸는 세상 이런..이마트 쌍인데?? 자주 이용해줬더니 양껏 건방져졌어!!

08.05.28 14:53 (121.131.xxx.194) 신고(0)

아야 회원에 의해 덧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고(0)

eunhwavirus 동국제약에 전화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때 시대인데 어떻게 그딴 신문에 광고를 낼수 있냐고 다른데도 많은데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있고... 또 광고내면 동국제약꺼 불매운동 할꺼라고 나 혼자 안 사는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불매운동에 동참 시킬꺼라 고”

지금 기분 좋아요 저도 애국자 맞쵸?

08.05.28 14:56 (211.219.xxx.143) 신고(0)

승후니좋아~ ㅋ 님들은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08.05.28 15:19 (211.212.xxx.227) 신고(0)

㊟몹쓸라이브 지존 후디스에 전화했더니 단번에 담당자가 오전부터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우리 힘내요~~~

08.05.28 15:22 (121.128.xxx.178) 신고(0)

자유인 sk에 전화해서 조중동은 정말 없어야 하는 신문들이라고..  
다시 또 이런 신문에 광고나오면 남편, 아들, 그리고 저 모두 해지하겠다고,,  
윗선에 꼭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요..

08.05.28 15:52 (211.201.xxx.144) 신고(0)

자유인 동국제약 광고실 전화를 거부하는군요..  
아예 통화중입니다.

08.05.28 15:54 (211.201.xxx.144) 신고(0)

jln425 저두 이제 이마트 끊어야 겠네요.. 집에서 젤 가까운곳인데..  
정말 이마트 실망이네요... 하나로마트 가야겠다....

08.05.28 16:03 (116.37.xxx.11) 신고(0)

miny3120 오옷 저도 SK 전화했어.. 아주 상큼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네요.. 음..뿌듯해요 ㄸㄸ

08.05.28 17:20 (203.229.xxx.253) 신고(0)

㊟태양소녀에스테반 임아트...너두 OUT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경영해....눈앞의 이익만 위해서 살지말고.....

08.05.29 02:27 (211.117.xxx.166)

그밖에 패션, 인테리어, 디지털카메라, 유머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인터넷 공동체에서 5월 31일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기 전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카페의 활동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나 불매운동 참가자들에 대해 미친 영향력은 일부분으로, 오히려 위 카페가 범사회적으로 일었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설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한 인터넷 카페 활동은 자발적인 회원 가입과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인터넷 공동체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부분적이고 익명적인 인간관계와 강제성이 낮은 규범 속에서 다른 회원들과 공동의 경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공동체는 가입된 이용자 누구나 공개적으로 카페

를 개설할 수 있으며 또한 비공개 카페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페가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그 활동을 회원들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 초기에는 회원 참여의 빈도와 강도가 카페 개설자 및 운영자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지만 성장기에 들어 회원 수가 증가하면 그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의 카페 회원과 운영진의 활동 역시 이러한 통상적인 인터넷 공동체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5월 31일 ‘아고라’(현 ‘쭈니’)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용자가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결성하고 운영자를 자임하였습니다. 그는 카페를 결성한 이유에 대하여 “한껏 조중동불매가 타오르고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카페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같은 뜻을 가진 개개인의 네티즌 시민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sup>2)</sup> 초기에는 1인이 단독으로 운영자를 맡았지만 회원수가 급증함에 따라 6월 9일과 25일 2차에 걸쳐 광고주 목록을 함께 정리하는 카페 도우미를 공개모집하여 공동의 운영진을 결성하였습니다.<sup>3)</sup> 카페 결성 후 불과 18일 만인 6월 17일 가입회원이 2만에 달할 정도로 카페 회원이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해당 시기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공통적인 관심사로 작용하였고, 기존의 회원들이 카페 홍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을 뿐 아니라<sup>4)</sup> 공중파TV 등 언론에 카페 활동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sup>5)</sup>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모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소모임도 구성되는 등<sup>6)</sup>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는 인터넷 공동체의 전형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나 특별히 중한 개별 행위자’는 운영진인 피고인들이라기 보다는 일반 회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서술하였다시피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시점에 있어서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는 ‘후발주자’였으며 회원들은 이미 카페 바깥에서 혹은 카페 개설 전부터 이 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거나 참여해 왔습니다. 즉, 회원들의 뚜렷한 목적의식 속에서 운영진은 같은 목적의식 하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동료’일 뿐입니다. 그러한 점은 카페의 진로를 두고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게시판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일부 게시판에 대하여 임시 접근금지 자율조치 및 메뉴폐쇄를 시행합니다.

글쓴이: 쭈니

조회수 : 2939

2) <http://cafe.daum.net/stopcjd/UEr/5>

3) <http://cafe.daum.net/stopcjd/UEr/8>

4) <http://cafe.daum.net/stopcjd/UEr/5>

5) <http://cafe.daum.net/stopcjd/UEr/7>

6) <http://cafe.daum.net/stopcjd/UEr/15>

08.06.25 23:30

<http://cafe.daum.net/stopcjd/UEr/25>

우리 카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카페입니다.

소비자주권은 헌법(제124조)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보호받는 최상위의 시민기본권이며, 정당한 '소비자주권'의 행사는 당연히 합법적인 법률행위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국한된 소비자운동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공정무역제품 등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추세에 발빠르게 맞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원두커피를 생산자로 부터 제 값을 주고 수입한다든지, 나이키가 독성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무역 상품을 늘리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시위, 2차 보이콧 수단의 선택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에는 각성제가 되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곡보다도 편파보다도 공정한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신문사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은 당연하고 정당한 선진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국민의 상식입니다.

반면 정부와 검찰, 조중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운동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내세워 정당한 소비자 운동과 의사표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다음'측의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페는 천만 국민과 함께하는 "다음"의 임시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다음"과 끝까지 함께하기로 하고,

금번에 다음측에서 임시 접근금지 조치한 게시글이 게재된 두 개의 게시판 - 오늘 숙제하기, 광고 전체리스트 - 에 대하여

카페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음" 또한 우리 카페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하여 국내 최초, 최대의 포털사이트로서 그 자긍심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티즌 시민 여러분께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함께  
깊고 넓은 뜻으로 이번 조치를 헤아려주시고 너그러운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는 마치 우리 카페만 막으면 '광고 불매 운동'이 사라질 듯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카페는 '광고 불매 운동'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은 네티즌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조선일보의 판단이 맞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 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글삭제 결정으로 심의대상글 뿐만 아니라 이후 수 많은 글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카페에서는 민변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비롯한 여러 법률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위 글은 6월 25일 광고주 목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운영진의 조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댓글입니다.<sup>7)</sup> 이 게시물의 댓글에서 많은 회원들은 운영진의 조치를 지지하였지만 일부 회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항의합니다.

“답답하네요.....그럼 도대체 뭐하러 백업용 카페를 만들고 가입을 하라고 한겁니까.....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동참하러 가입하신 분들을 어떻게 불러고 그러나요?.....”(펜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언제 접근금지를 푸실 생각이신가요?? 폐쇄만 안 당하면 그만인가요... 차라리 폐쇄를 당하는게 낫지, 이게 뭐니까? 뒷방에 앉아누운 노인네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시민사회적 가치를 지킨다는 정당한 명분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굴님이)

“언제까지 카페 운영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제는 다음에 항의 했었는데,...”(바하)

이어 회원들은 스스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카페 외에도 이미 다른 많은 곳에 확산되어 있는 광고지면 불매운동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거나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리스트를 우편발송하면 어떨까요? ”([언어폭력강패반...](#)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 신문사들은 자기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볼수있도록 해놓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날짜 설정한다음에, 광고에 AD 클릭하면 볼수있어요. 조선일보 사이트를 들어가야한다는게 끔찍하긴 하지만 리스트 찾고 그러는게 귀찮으신분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겁니다. 막힐일도 절대 없구요ㅋ”(카디즈)

“외국 사이트에 매일 리스트 올리고 우리쪽에선 어드레스만 보여주는 방식은 어떨까요?”(괴레메홀릭)

“이 사이트 어떤가요??? 여기에 목록을 올리고 링크를 건다면 문제없을 듯 한데....<http://globalcandles.org/home/>”(김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되나요? 이건 조선일보가 정말 문단을 각오로 국민들하고 한판 해보자고 선전포고 한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없는 행동을 했으면 반성하고 자숙해야지..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한테 뭐라고 한다고 정말 열받게 하네요.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Youngseok Hahn)

“숙제를 메일링 리스트로 만들어서 돌립시다!! 매일 아침 다섯시면 배달되는 경향&한겨레와 “오늘의 숙제” ”(머그)

“숙제가 없다면 도대체 무얼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일일이 조선일보를 보기는 싫고 광고 리스트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조중동폐간 운동도 호지부지 될수 있다고 봅니다..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할것 같아요”(멍한 하늘)

“광고 리스트만 존재하는 사이트를 만들면 좋을것 같네요. 불매등과 같은 단어가 하나도 없이 리스트만 공개하는 사이트형식으로 만들면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플래니모)

7) 분량 관계상 일부만 옮깁니다.

“메일링리스트.. 시스템 구현 가능하신 분 있나요? 아침에 챙겨서 소스를 발송 가능하신분께 전해주시고 메일로 돌려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평화!)

“[http://www.slclub.com/bbs/vx2.php?id=free&page=1&sn1=&sid1=&divpage=766&sn=off&sid=on&ss=off&sc=off&keyword=151428&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97921](http://www.slclub.com/bbs/vx2.php?id=free&page=1&sn1=&sid1=&divpage=766&sn=off&sid=on&ss=off&sc=off&keyword=151428&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97921) <- 오늘자 광고 리스트 입니다..다른 사이트 링크는 괜찮죠?^^”(멍한 하늘)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3sxdNKGnbA](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3sxdNKGnbA) <- 전날자 조선일보 광고 리스트입니다...여기는 좀 안전하네요~대신 전일까지만 올라온다는 게 아쉽습니다.”(멍한 하늘)

“아고라에 가면 칭찬리스트 많아요~~ ㄱㄱㄱ”(장기30년투자)

“메일링 해줘요... 진짜 이렇게 굴복하면 어떡해요 ..”(나무)

“광고목록은 조아세나 아고라에 항상 대기중입니다.”(뉴스타트)

“일단 여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81509>”로 가봐요~~”(쥐시러)

“여기 없어진다면...없어지는 거 싫지만, 우리 다같이 옮겨갑시다!!! 주소만 알려주셈. 어디든지 간다!!!”(행복한이)

“정식으로 카페 수사에 착수하려나 봅니다.. 만약에 카페가 없어져야 한다면 함께 갑시다.. 주소를 가르쳐주세요. 그곳에서 다시 모입니다!”(생생)

“나도 잡아가라지...오늘 가입했어요 일부로~”(참외가좋아)

“오늘자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는 어디서 구할수 있죠? 칭찬해줘야 되는데..”(Youngseok Hahn )

“숙제는 검색을 통해...”(Shangrira )

“아고라에 신문 쉽게 끝느법 글이 한번 밖에 올라오지 않았더군요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고라 글 쓴분-로디우스, 스피드폰 지은이로 검색하면 찾을수 있구요.”(밴댕이)

“우리아이한테들은애긴데요, 네이버에서 쫓썬이보를클릭하면 500원을쫓썬일보에서지불해야한다던데요 어떡사용하는지아시는분알려주세요???”(할말은해야속풀...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검색하셔서 조선일보 주소 나오면 클릭하셔서 한번 들어 갈때마다 광고비로 500원 빠져나갑니다. 조선일보에서 네이버에 광고비로 먼저 선입금된 돈에서 빠져나갑니다. 다음에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들어가실때 속이 울렁거려도 참으셔야 합니다..ㅎㅎ)”(천불)

“오늘 숙제하려고 들어왔다 어디로 숙제 해야 할지 몰라서 놀랐습니다.지역시 신분의 위험을 느낍니다.운영자의 고충을 이해 합니다.하지만 끝까지 같이 갑시다.끝까지....”(황매산)

이처럼 회원들이 카페의 진로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뚜렷한 문제의식 하에 카페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소위 ‘숙제검사’의 명목으로 운영되던 한줄 메모장에 남겨져 있는 회원들의 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8)

바부 08.06.03 22:49 답글  
대기업은 힘드는군요 sk텔레콤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sk만 잡아도 절반 이상 성공한것 같은데 힘드네요 ...

전화기\_미우라 08.06.03 22:16 답글  
열심히 시간 만들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짱.

시대의부름 08.06.03 22:11 답글  
이제야 뒤늦게 가입했습니다. 이런 카페가 하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고라님께서 발빠르게 만들어주셨네요. 내일부터 숙제 들어갑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애국자 여러분 화이팅~

타란툴라 08.06.03 22:09 답글  
빛이 보이네요,,,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역사 08.06.03 22:00 답글  
정말 성과가 있었으면....

간지누님 08.06.03 21:21 답글  
정말 좋은 카페 만드셨어요.아고라님 짱!!!

알바척살 08.06.03 20:54 답글  
카페 홍보부터 해요...퍼나르기

잠스 08.06.03 20:53 답글  
오호.. 가입자가 막 불어나는군요? —.—;;

임페라토르00 08.06.03 20:45 답글  
고생하시네요!!!!!!!!!!!!!!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규노파 08.06.03 20:22 답글  
좋아 좋아 너무좋아~~~~아름다운 대한민국들.

창원도우짱 08.06.03 19:29 답글  
3건 완료 했습니다!!

꿈꾸는나무 08.06.03 19:19 답글  
여기 맘에 듭니다. 회원이 아직 적으니 카페 광고하고 다닐게요.

용용이 08.06.03 19:06 답글  
보령에 전화했더니 조민아라는 직원 시끄럽게 막 소리지르던데요.. 계속 광고 개제하겠다고 하던데..

페르디 08.06.03 19:05 답글  
이런 아름다운 카페가 있었다니

---

8) 카페 개설 후 3일간 한줄 메모장에 남겨진 회원들의 가입과 활동의 변 가운데 분량 관계상 일부만 옮깁니다.  
시간상 역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cafe367.daum.net/\\_c21\\_/memo\\_list?gpid=1EIWX&mgrpid=&flldid=\\_memo&prev\\_page=572&page=573&firstmemoid=36&lastmemoid=14&listnum=&is\\_imsi=false](http://cafe367.daum.net/_c21_/memo_list?gpid=1EIWX&mgrpid=&flldid=_memo&prev_page=572&page=573&firstmemoid=36&lastmemoid=14&listnum=&is_imsi=false)

굿모닝 08.06.03 18:21 답글

황토발에 전화했습니다. 집에가 잠이나자라는둥. 가지가지한다는둥..지금 20통 넘게 전화중인데 아예 전화 취급을 안하고 끊어 버립니다. 02-738-7387 1588-5663

정리하자 08.06.03 18:10 답글

취박이는 5년이면 아니 곧 내려오겠지만 조중동은 그 생명력이 질기기 때문에 이참에 지속적,체계적,효율적으로 폐간 운동을 했으면 하네요...^^ 저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숙제를 해야겠네요..^^

새하늘 08.06.03 17:50 답글

렉서스 타는 사람은 촛불집회 안나간다고 생각하나봅니다. 도요타 자동차 한국점유율 많이 올라가니까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왔나보군요. 렉서스 타는 사람인데 사람들 시선이 왜이러냐? 니네가 마케팅 잘못하니까 밖에 차세워두기 무섭다. 똑바로해라 좀 이럴때 광고한다고 차가 더팔리는것도 아닌데 니네들 차 산사람 생각도 좀 해라... 이런 논리가 좋을것 같네요. 단 렉서스 타는 사람의 목소리로 해야 먹힙니다. ㅎㅎ

㊤호수 08.06.03 17:27 답글

렉서스에 전화했습니다. 고객한테 광고 관련 사항 알려줄 생각 전혀! 없다고(정말 이렇게 말했음) 합니다. 02-43404-8200 누른 후에 1번 누르면 고객 지원센터고 02 -404-8220하면 바로 홍보실입니다. 항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달에 울다 08.06.03 17:12 답글

태극제약에 전화를 걸었더니 여론 수렴하며 눈치를 보는 중이더군요.

뚜기 08.06.03 16:57 답글

태극제약, 천호식품 항의메일 보냈음 신일제약 칭찬메일 보냈음 아기가 어리고 지방이라 촛불문화제 참가못해서 미안한 마음 많았는데 매일 숙제 열심히 할게요

㊤호수 08.06.03 16:50 답글

KT 동아일보 오늘자로 광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조중동 어디에도 광고 안 실기로 약속했습니다.

㊤호수 08.06.03 16:50 답글

시몬스 6월 5일자로 조중동 광고 내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달에 울다 08.06.03 16:48 답글

한미양행! 내일 이후로 조중동 광고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소환제 실시 08.06.03 16:42 답글

AIG 전화했더니, 담당부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선 주민번호 찍는 안내가 나오네요. '손해보험'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길래, 제가 든건 손해보험이 아니라서 그냥 전화끊었습니다. (좀 소심했나? 쯤..) 손해보험 든 분들이 좀더 당당히 요구하심 좋겠네요.

초이 08.06.03 16:35 답글

삼진제약에 전화했더니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네요. 검토중이라는데 질기게 광고하네요.

오늘도맑음 08.06.03 16:14 답글

현대에도 전화걸어서 광고를 개재하면 이미지가 나빠질것이다. 물론 대기업이라 잃을것도 많아서 광고중단을 선언할수는 없겠지만 몇달은 하지마라고 했더니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달동안 조선일보 돈떨어지고 이미지 떨어지면 그 권력도 끝이고 대기업들도 하나,둘 떠나갈겁니다



오늘도맑음 08.06.03 16:11 답글  
농심 전화해봤는데 친절하게 받았구요 이제 알한다고 했답니다 ^^ 기업이 무슨 죄있는것도 아니구 기업을 위해서 이미지상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말씀 부드럽게 해주셔요

다메다메 08.06.03 15:40 답글  
AIG, 농심 전화하면 화나요..-\_-;; 집중해주세요 애네들.. 아직 여론을 모르는것 같아요

아게하 08.06.03 15:37 답글  
태극제약 홈페이지 항의글 올려놨습니다~ 촛불시위 참가 안해도 이런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네요

조종동은가라 08.06.03 15:35 답글  
지마켓은 탈퇴했고, 인터파크에는 어제 항의글 올리고 상투적인 답변만 들었는데 인터파크는 지금 어떤가요??

대끼리 08.06.03 15:26 답글  
오늘 4군데 항의 메일 보냈습니다. 낼부터 전화 예정

하늘사랑 08.06.03 14:31 답글  
방금 가입했습니다. 조종동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음을 사죄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힘냅시다!!

빠다백만스폰 08.06.03 14:29 답글  
뜻을함께하고자 가입했습니다... 부친상으로 조신하게 지내야하는관계로 향후 많은 활동하겠습니다

yeppi 08.06.03 14:28 답글  
조선만 했는데 롯데관광은 좀더 많이 조여야 될것 같더군요

rosa 08.06.03 14:27 답글  
오늘 가입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주부입니다. 이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여기에 왔네요. 직접 행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뚜기 08.06.03 13:47 답글  
비비큐, 한미양행,농심 항의메일보냈음

파티마 08.06.03 11:30 답글  
skt는 어떨까요? -\_-;; 메일한번 전화한번 항의했음~ 거의 10년 그대로...번호이동 한번 안했는데 ..2일날 옮길려다가 경향신문에 전면광고 냈다길래 약간 미웠습니다만.. 경향에 오늘 광고가 없네염.. 한겨레인가? -\_-

다메다메 08.06.03 11:18 답글  
오늘 숙제는 안나오나요?ㅠㅠ 기다리고 있는데..

나비 08.06.03 10:48 답글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오늘부터 동참하겠습니다.

황매산 08.06.03 09:28 답글  
어제 아침에 진로 임페리얼에 전화를 하였습니다.정중하게 하였습니다.윗분들에게 뜻을 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ukuk2 08.06.03 03:56 답글

항의 글 올립니다.

jjangam 08.06.03 00:54 답글

어제 명인에 격려글 올리고 동화약품에는 항의글 올렸습니다. 조중동 폐간되는 그날까지 .....

조중동 장례사 08.06.02 23:59 답글

조중동 장례는 내가 책임진다.

조중동 난감!? 08.06.02 21:37 답글

아이디어 멋지십니다...

구뽕 08.06.02 21:33 답글

쫓중동의 광고주 압박은 쫓중동 폐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저 감탄스러운 뿐이고,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지 않을 수 없군요. 저도 열심히 동참해 보겠습니다. ^^

sweet 08.06.02 16:16 답글

대구백화점이랑 메리케이, 파리바게트, 지랄마켓, 인터파크 했어요~~ 조중동 폐간되는 그 날까지!! 숙제는 계속된다

날고기스프 08.06.02 14:07 답글

탐항공사 칭찬/불만 페이지, 천호식품 고객 센터, 동화약품 고객의소리에 광고자제요청 했습니다~

나홀로서기 08.06.02 13:32 답글

빨리 폐간되어야할 것들입니다 이제서야 하는것도 늦는겁니다 나쁜언론조작자들

behappy 08.06.02 13:20 답글

오늘 가입했습니다. 모두 힘을 모을수있는 구심점이 되는 카페가 되길 바랄게요.저두 작은 힘이지만 도움되도록 숙제 ㅎㅎ 열심히 할게요.

칭구 08.06.02 12:48 답글

개업을 축하합니다. 자주이용하고 참여하겠습니다

파티마 08.06.02 12:16 답글

사이트 오픈 감사합니다~ ^^ 항상 인터넷에서 찾기 번거로웠는데~

허하신 08.06.02 11:58 답글

의견 하나 낼게요... 컴잘하는 14분이 2일 1조로 1주일로 조편성을 해서 요일별로 팝업창을 "ㅇ 월 ㅇ 일 -아침숙제" 라는 제목으로 아고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는 "아침숙제" 검색해서.. 전화하는 겁니다. 2인 1조란? 한분은 아침 신문의 광고리스트 작성하시고.. 다른 분은 팝업창에 심고.. 어떨지요?

dalmapd 08.06.02 11:39 답글

여러분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등생되기 힘드네요.ㅋㅋㅋㅋㅋ

Discovery 08.06.02 11:22 답글

강남자이비노기과외원에 항의 전화 했습니다. 나중엔 전화 싸가지없이 받으려길래 막퍼부었습니다. 흥분해서 죄송... 미국에 있어서 국제전화한건데 ㅋㅋ 애타 개새끼들 없어지는 그날까지!!!

boogienits 08.06.02 10:38 답글

화이팅! 불매운동 앞장서겠습니다!

younger 08.06.02 10:24 답글  
조중동이 우리나라 신문역사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불매운동 하겠습니다.

이강춘우 08.06.02 10:12 답글  
조선 동아 중앙 폐간이 우리나라 최고 경축일이다. 권력에 아부하고 기생해서 국민을 팔아먹는 악덕 찌라시들..이 것들이 없어지는 그날을 민주언론의 날로 선포해야...지금 여기에 광고내는 기업 홍보부처는 제정신인가?

리쿠츠 08.06.02 10:03 답글  
7개 쯤 전화했습니다. 그런 찌라시 신문에 광고 내면 기업 이미지 떨어진다고 앞으로는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신문에 광고 내서 기업 이미지 높이라고 했어요.

아아젠 08.06.02 09:43 답글  
동화약품에 전화했습니다. 첨이라 좀 멀리더라구여..ㄷㄷ 근데 뭐라고 말해야할지 잘 몰라서 좀 버벅임..ㅠ\_ㅠ..

황매산 08.06.02 09:37 답글  
수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페가 활성화가 되질 않아서 실망 이었는데 조중동 쓰레기들이 실업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hacker22 08.06.02 09:36 답글  
오늘 스피드메이트 전화했습니다 자 다음거 고고

vidkid 08.06.02 09:32 답글  
사이트 오픈 감사합니다..^^ 숙제 할게요~

힘내라 안단테 08.06.02 09:32 답글  
카페베네 방금 전화하고 김충원 고승덕 나경원 사무실 전화하고 일단 커피한잔 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싶은데 너무 통화중이라 대기중이에요. 나이트 아줌마가 할수있는 일입니다. 감사드려요. 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단테\_나옹이 08.06.02 09:29 답글  
일단 인사드리고요..일을하고 저녁에 와서 숙제 할게요..여러분 수고가 많아요^^훗팅

불나비 08.06.02 09:13 답글  
숙제 하고 올게요 ㅠ ㅠ

천하절색미 08.06.02 09:03 답글  
매일 방문하겠습니다 -\_-+++

더덕 08.06.02 08:59 답글  
이를 갈고 있습니다.이그....

catarina 08.06.02 08:55 답글  
이런 곳을 통해 지속적으로 숙제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자구요~!!

일하기싫다 08.06.02 08:52 답글  
소심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마켓을 탈퇴~ 명단 매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꼭꼭 해나 가겠습니다~ 쟁~



관련 사회적 논쟁에서 있어 특정한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이 카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일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들의 활동이 운영진의 지배나 교사에 의해 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으로서, 이런 자발성은 당시 범사회적으로 일었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비판의식의 공감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나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인터넷 이용자 뿐 아니라 다수 매체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카페 결성은 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목적으로 한 카페를 결성한 것은 특수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의제에 대하여 한국 인터넷 이용자가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른 것이며,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은 유사한 목적을 표방한 다수의 카페 중 하나입니다. 광고주에게 광고지면 불매를 요구하는 이 카페의 활동 역시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한 다수 네티즌의 선택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운영진과 회원의 관계는 위계적이지 않았으며, 카페의 활동에 대한 사항도 운영진과 회원 모두의 게시글과 댓글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토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게 전화를 하고 카페를 홍보할 것을 권유하는 ‘숙제’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활동은 다른 인터넷 공동체처럼 각 회원들의 순수한 선택과 참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4.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언론 소비자 운동이자 집단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향후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집단 압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인터넷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인터넷공간은 익명성을 확보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강력한 전파성을 갖춘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본건과 같이 카페 내지 블로그 형태로 손쉽게 수만, 수십만의 회원을 확보하여 그 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압력단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찰은 인터넷으로 ‘집단행동’이 조직되고 그 세가 발휘되는 것에 대하여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주권은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으로서 이에 의거한 집단 행동을 ‘무차별적 집단 압박행위’라고 폄하하는 것은 악의적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권력관계에 있어 약자의 입장인 소비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보다 큰 단위의 소비자 운동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집단 행동이 부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은 소비자들에게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을 생활 속에서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일찍이 토플러는 ‘생산소비자’(prosumer)라는 개념으로 정보화 시대의 경제생활 변화를 집약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정보가 선별되며,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흐름, 그리고 소비의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생산소비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기업의 미비한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들이 만든 홈페이지 수준에서 시작한 소비자운동형 인터넷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의 불만을 얘기하고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서명 운동, 오프라인 시위 등으로까지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연의 확대는 기존의 소비자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향후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이 큼니다.

위에서 거론한 82cook.com 이나 마이클럽의 게시판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지면 불매운동 외에도 촛불시위 관련하여 비판적 발언을 한 연예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광고주, 미국산 제품,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 등 다양한 불매운동에 대한 제안과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과 무관한 GMO사용회사, 이스라엘 기업, 대형마트 불매운동 또한 논의되었거나 논의 중입니다. 즉 인터넷 공동체의 회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게시판에서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다양한 소비자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이 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일반 시민들이 광범위한 문제의식 하에 참여하였던 인터넷 소비자들의 활동이 위법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장차 인터넷 시대 소비자들의 집단 행동을 중대하게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9년 2월 1일

탄원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 중 회)